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1013만원...전월비 0.53% ↑

신규분양, 전월비 39% 줄어든 총 1만785세대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307만원(3.3㎡당 1013만원)으로 전월대비 0.53% 상승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8.40% 상승한 수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9일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전월 대비 8개 지역은 상승, 3개 지역 보합, 6개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447만9000원으로 전월 대비 2.69% 상승했고, 5대광역시와 세종시는 0.37% 상승, 기타지방은 0.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평균 분양가격 분석결과 전월대비 평균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2.63%), 전용면적 60㎡이하(2.20%)순으로 상

승했다.

9월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는 총 1만785세대로 전월 1만9308세대 대비 39% 감소, 전년 동월 2만967세대 대비 58% 감소했다.

9월 수도권의 신규분양세대수는 총 5442세대로 전년 동월 1만7408세대 대비 69%가량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국 분양물량의 4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대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총 3822세대로 전년 동월 3446세대 대비 11% 증가, 기타지방은 총 2521세대로 전년 동월 7118세대 대비 65%가량 감소했다.

서울지역은 강남구와 강동구, 구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1867세대 신규분양이 이뤄졌다.

이달 집계대상에서 제외된 금천구의 영향과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강남구가 집계대상에 포함된 영

향이 더해져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대비 5.44% 상승한 650만700원(3.3㎡당 2147만3100원)을 기록했다.

경기지역은 고양시와 군포시, 김포시, 시흥시, 안성시에서 총 3575세대 신규분양이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안성시가 집계 대상에 포함된 영향으로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대비 0.38% 하락한 362만8000원(3.3㎡당 1197만2400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은 신규분양이 없었으나 중구의 전년 동월 분양내역이 이달 집계대상에서 제외되며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대비 5.71% 상승한 289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강원지역은 강릉시와 춘천시에서 총 206세대 신규분양이 이뤄졌다. 춘천시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이뤄진 영향과 이달 집계대상에서 제외된 속초시의 영향이 더해져, ㎡당 평균 분양가격은 1.44% 하락한 223만5000원을 기록했다.



환절기 건강 약초물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는 환절기 맞아 약도라지, 우슬, 두충, 여주, 작두콩 등 총 70여가지의 약초를 19일까지 판매한다. 체질에 맞는 약초를 물과 함께 끓여 마시면 효과가 있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쌀 예상생산량 395.5만t...전년비 24만t 감소

통계청, 재배면적·10a당 생산량 모두 줄어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24만톤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쌀 예상생산량은 현백률 92.9% 기준, 395만5000톤으로 전년(419만7000톤) 대비 5.8%(24만2000톤) 감소했다.

재배면적과 10a당 생산량이 모두 감소한 결과다. 올해 쌀 재배면적은 75만7000ha

로 전년(77만9000ha)과 비교해 3.1% 줄었다.

기본적으로 경지 면적이 감소한 데다 정부의 쌀 적정생산유도 정책으로 인해 타 작물 전환 사례가 늘면서 전체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10a당 생산량은 지난해 539kg에서 올해 524kg로 감소했다.

모내기 시기에 가뭄, 낫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잦은 비 등 기상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좋지 않았다는 것

이 당국의 설명이다. 시·도별 생산량은 전남이 82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72만2000톤), 전북(64만8000톤)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과 충남, 전북 등 3개 지역의 생산량이 전체의 55.4%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은 재배면적이 감소했지만 기상호조로 생산량이 많았고 총생산량은 400만톤 이상 유지했다"며 "올해는 재배면적과 10a당 생산량이 감소해 400만톤 이하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뉴스시스

기상 악화로 전남지역 쌀 생산량 3.2% ↓

호남통계청, 총 생산량 82만t 예상...가뭄·일조량 감소 원인

올해 전남지역 쌀 생산량은 기상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호남지역통계청이 2017년 전남지역 논벼와 밭벼의 생산량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쌀 재배면적은 지난해 16만6444ha에서 올해 16만445ha로 3.0% 감소했고 생산량도 82만t으로 3.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0a당 예상생산량은 508kg으로

전년 510kg 대비 0.4% 감소했다.

5~6월 모내기 시기의 극심한 가뭄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이삭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낫알이 형성되는 7~8월에 잦은 강수와 일조시간 감소로 낫알수

가 줄어들어 10a당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은 기상여건 호조로 10a당 생산량이 증가해 총 생산량은 80만 이상을 유지했다.

올해 전국 시·도별 예상생산량은 전남이 82만t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72만2000t, 전북 64만8000t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생산량의 55.4%를 차지했다.

"충장축제서 지역 시니어·1인 창조기업 제품 만나요"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기청, 공동 상품판매전



'추억의 충장축제'와 연계한 '광주·전남지역 시니어 및 1인 창조기업 공동상품판매전' 행사가 18일부터 22일까지 광주 금남로공원에서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 중기청(청장 김진형)이 주최하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6개 센터)와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개 센터)

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총 19개 업체가 참여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센터 입주 및 졸업 기업 제품의 소비자 반응을 통해 업체의 마케팅 전략을 반영하고 판로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참여업체의 다양한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삼순언니, 한국캘리그래프, 초빙, AIRBUZZ 등 8개 업체의 향수 만들기, 발효식초 만들기, 드론 조정 등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전연비누와 방향제를 만드는 삼순언니 김지현대표는 "1인 창조기업으로 초기 창업 당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센터 입주는 물론, 판매전을 통한 판로 개척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시니어기술창업센터를 통해 아이디어가 있는(예비)창업자에게 창업기, 성장기 등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사업화 지원, 디자인 개발, 판로마케팅, 전문가 상담, 교육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기청 김진형청장은 "이번 판매전 행사가 시니어와 1인 창조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판로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지역구광미배경조경면적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광주광역시 GWANGJU CITY